

▶ 목 차 ◀

I. 투자 여건	5
II. 투자유치 제도	19
III. 법인설립	25
IV. 지사/연락사무소 설립	28
V. 조세 제도	30
VI. 노무 관리	32
VII. 기타 정보	36
<부록>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	39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TIP

현지 중소기업과의 합작투자는 신중해야

말레이시아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이 합작투자에 매우 적극적으로 덤비고 자본투자를 약속하고 한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한국기업과 합작투자를 하지만 추후 기술습득과 훈련이 끝나면 한국기업을 버리고 현지기업과 손잡는 사례가 많다. 일부 상장기업은 주식조작을 위해 한국기업과 합작투자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특정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법무사를 이용

현지 파트너 이야기만 듣고 경험없는 법무사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되도록이면 제조업, 유통업 등 각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무사를 활용해야 한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비자취득에 유의해야

제조업을 제외하고 한국의 말레이시아 투자는 주로 무역과 유통업 및 식당 등이나 2004년 말부터 비자발급 심사기관이 이민국에서 국내교역 소비자부로 이전됨에 따라 비자취득에 기존 2개월에서 무려 5~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음을 감안, 무역이나 유통업을 하더라도 첨단 정보통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비자가 빨리 나올 수 있으므로 법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는 신중해야

일반 제조업 분야에 대한 말레이시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인건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콜센터, 조달, 창고, R&D, 직업훈련 센터)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



제조업 투자가는 MIDA와 친구처럼 지내야

제조업 허가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비자발급 등의 권한을 MIDA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가 갖고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MIDA 내 외국인투자 진흥국을 자주 찾아가서 안면을 익혀 놓는 것이 좋다. 공장운영 시 지방정부와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 수도, 전화 등 각종 인프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MIDA 파견 직원에게 상의하면 된다.

I. 투자 여건

1. 외국인직접투자 개황

- 말레이시아는 197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과 유사한 말레이시아 개발계획(2006~2010년: 9차 개발계획 진행 중)을 수립하여 제조업의 기반을 육성함
- 경제개발 초기 말레이시아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특히 전기·전자산업)에 중점을 두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말레이시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 그 결과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 Intel, 측정기기 전문기업 Agilent, 컴퓨터 회사 Dell, 디스크 드라이브 공급업체 Komag, 일본 전자기기 회사 Sony, 우리나라의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포함한 총 300여개의 다국적기업 투자를 유치했음
- 199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 증가율은 매년 15%를 상회하였으며, IMF 금융위기 직후에는 잠시 주춤하였으나, 2001년까지 매년 평균 외국인투자 규모는 250억 링깃(70억 달러)을 기록했음
- 그 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내투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세계적으로 투자유망지역으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의 등장 등 투자환경의 변화로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급격히 감소하여 매년 130억 링깃 정도에 머물고 있음
- 그러나 2005년과 2006년에는 세계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말레이시아 유전 탐사 및 석유화학 산업 투자 증대와 대 중국 진출 외국인투자자들의 일부 말레이시아 복귀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가 다시 급증하여 2005년의 경우 2004년 대비 36.6% 증가한 총 179억 링깃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고 2006년에도 이러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202억 링깃을 기록함

- 또한, 2006년에도 2005년에 이어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투자는 강세를 나타내었는데,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중 1억 링깃 이상인 대규모 투자는 전년도 53건 보다 3건 증가한 56건(총 157억 링깃 규모)을 기록했고 이들 56개 대규모 프로젝트 중 10억 링깃 이상인 프로젝트는 3건으로 이들 3건의 투자액 합계는 49억 링깃을 기록하였음

<1억 링깃 이상 투자 프로젝트 현황>

(단위 : 링깃)

산업	건수	국내투자(링깃)	해외투자(링깃)	총 투자액(링깃)
석유(석유화학포함)	5	10,806,960,000	600,000,000	11,406,960,000
전기·전자	18	913,240,000	7,908,488,331	8,821,728,331
화학 및 화학제품	27	2,782,696,283	1,705,216,515	4,487,912,798
기초 금속	2	138,470,975	2,091,445,982	2,229,916,957
비금속 광물	2	-	801,380,944	801,380,944
식료품 제조	4	122,784,000	650,057,140	772,841,140
운송 기계	3	636,389,271	113,200,000	749,589,271
섬유류	2	530,000,000	100,375,000	630,375,000
과학측정기기	2	26,102,760	581,420,640	607,523,400
합성금속	2	172,725,000	357,775,000	530,500,000
가구 및 가구류	3	268,372,000	214,228,000	482,600,000
기계 및 장비류	3	-	364,150,000	364,150,000
종이, 인쇄 및 출판	2	213,042,700	-	213,042,700
고무 제품	1	69,690,000	81,810,000	151,500,000
플라스틱 제품	1	-	124,113,000	124,113,000
합계	77	16,680,472,989	15,693,660,552	32,374,133,541

주) 환율: US\$ 1=RM 3.4 (2007.5월)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2.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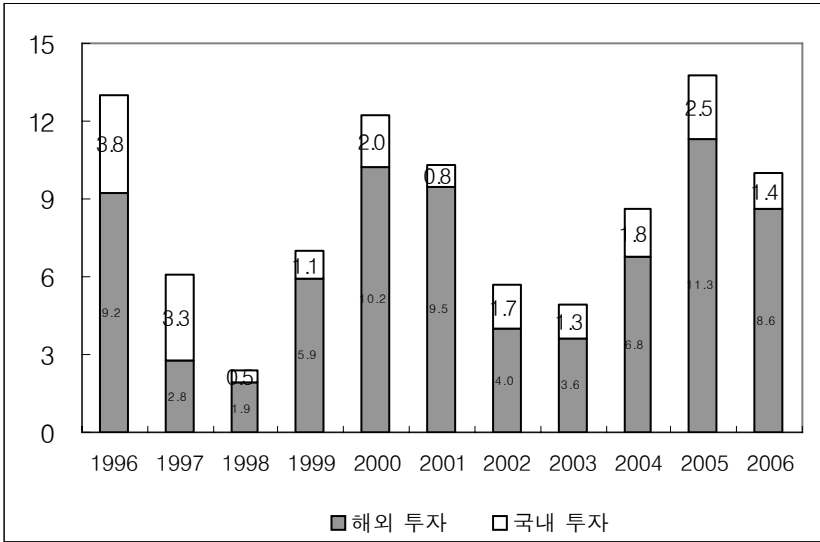
■ 전기·전자산업, 외국인투자의 43% 점유

- 2006년도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43%에 해당하는 86억 링깃을 기록하였고 그 동안의 누적 외국인투자는 800억 링깃을 초과

- 이는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기·전자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페낭주 전기·전자 복합단지 및 세렘반 주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최근 10년 간 전기·전자 산업의 투자 승인 현황>

(단위: 십억 링깃)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2005/2006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 링깃)

주요 산업	2005		2006	
	외국인투자	전체 투자액 (국내투자 포함)	외국인투자	전체 투자액 (국내투자 포함)
전기·전자	11,319	13,794	8,601	10,024
화학 및 화학제품	869	1,721	3,032	9,144
기초금속	430	3,205	2,288	2,724
광물	596	922	962	1,167
음식	532	1,457	895	1,620

플라스틱	595	1,180	757	1,135
과학측정기기	1,364	1,427	665	781
기계	570	1,027	657	1,267
합성금속	251	759	616	1,326
석유(석유화학포함)	133	735	605	11,438
투자총액	17,883	31,057	20,228	45,993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최근 5년간 산업별 제조업 투자 누계(국내 및 외국인투자)>

(단위: 백만 링깃)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2006
식품 제조	1,221	1,077	1,116	1,457	1,620	6,492
음료 및 담배	98	16	377	94	63	648
섬유 및 섬유제품	197	293	824	374	821	2,509
가죽 및 가죽제품	41	6	18	9	1	75
나무 및 나무제품	459	1,085	897	360	983	3,785
가구류	305	313	344	512	411	1,884
종이, 인쇄, 출판	314	254	4,723	954	688	6,933
화학 및 화학제품	919	955	3,009	1,721	9,144	15,748
석유 및 석유화학	4,866	444	1,902	735	11,438	19,385
고무	382	211	385	773	715	2,466
플라스틱	536	877	683	1,180	1,135	4,412
비금속 광물	476	454	775	922	1,167	3,792
기초 금속	364	8,711	1,925	3,205	2,724	16,929
가공 금속	475	1,295	1,195	759	1,326	5,049
기계 제조	707	639	407	1,027	1,267	4,047
전기 전자	5,651	4,978	8,627	13,794	10,024	43,073
운송장비	698	6,979	1,324	1,416	1,448	11,866
과학측정 장비	95	463	82	1,427	781	2,848
기타	74	97	159	338	237	904
합계	17,878	29,145	28,773	31,057	45,993	152,845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2006년 국별 대 말레이시아 제조업 투자 동향

- 2006년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부문 총 해외 투자 유치액은 202

억 링깃을 기록하였는데, 일본(44억 링깃), 네덜란드(33억 링깃), 호주(26억 링깃), 미국(25억 링깃), 싱가포르(19억 링깃) 등 투자규모 상위 5개국의 투자 총액은 146억 링깃을 기록해, 전체 투자유치액의 72.3%를 차지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투자유치 동향: 제조업 부문>

(단위: 백만 링깃)

주요 투자국	2006		2005		2004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일본	81	4,411	84	3,672	85	1,011
네덜란드	13	3,284	26	1,674	9	99
호주	20	2,560	12	156	12	117
미국	38	2,477	43	5,155	27	1,059
싱가포르	130	1,885	130	2,920	161	1,515
Cayman Island	2	861	2	154	3	57
British Virgin Islands	6	648	3	13	6	115
영국	17	642	11	99	11	151
레바논	1	562	-	-	-	-
한국	18	438	24	674	25	325
투자총액		20,228		17,883		13,144

주) 순위는 2006년도 기준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국별 제조업 투자현황 및 최근 5년 누계

-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에 대한 각국의 투자규모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총 135억 링깃을 투자해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일본,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대 말레이시아 투자액은 22.5억 링깃을 기록, 투자 규모면에서 세계 9위를 기록

<최근 5년간 국별 대 말레이시아 제조업 투자승인액 현황>

(단위: 백만 링깃)

국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2006
미국	2,668	2,182	1,059	5,155	2,477	13,540
일본	587	1,296	1,011	3,672	4,412	10,977
독일	5,055	170	4,724	388	232	10,569
싱가포르	1,019	1,225	1,515	2,920	1,885	8,564
네덜란드	607	316	99	1,674	3,284	5,980
영국	168	3,870	151	99	642	4,931
아랍에미리트	0	3,952			40	3,992
호주	108	105	117	156	2,560	3,046
한국	369	447	325	674	438	2,252
대만	252	622	415	431	405	2,125
Cayman Islands	70	2	57	154	861	1,144
인도	20	47	292	559	8	926
British Virgin Islands	20	33	115	13	648	829
스위스	25	13	121	563	46	769
중국	55	247	187	40	134	663
레바논		0			562	562
태국	9	264	37	142	109	561
노르웨이		23		303	114	440
인도네시아	12	48	87	52	215	414
홍콩	65	103	50	105	84	408
프랑스	70	44	137	35	85	371
이탈리아	31	10	31	41	219	332
캐나다	1	3	216	71	7	298
파나마	60			175	21	255
필리핀	1	34	215		1	251
덴마크	4	9	180	31	7	231
포르투갈					180	180
스웨덴	1	34	29	36	44	143

버뮤다	12			3	80	95
아르메니아	39		21			60
리히텐슈타인	57					57
뉴질랜드			53	0		54
모리셔스	17	6			27	49
바하마	9				34	43
터키		1		0	37	38
핀란드		0	30	1		32
스페인	6		10	10		26
브라질				24		24
룩셈부르크				24		24
아일랜드	23					23
러시아	14			7		22
이집트		3			17	20
오스트리아		5		12	2	19
파키스탄			1	2	12	15
방글라데시				9		9
이란		2	4			6
페루				6		6
마카오		6				6
남아프리카공화국		6				6
키프로스					5	5
나이지리아				5		5
베트남	3					3
미얀마	2	0				2
벨기에	2					2
튀니지			1			1
기타	117	512	1,855	289	295	3,068
합계	11,578	15,640	13,144	17,883	20,228	78,473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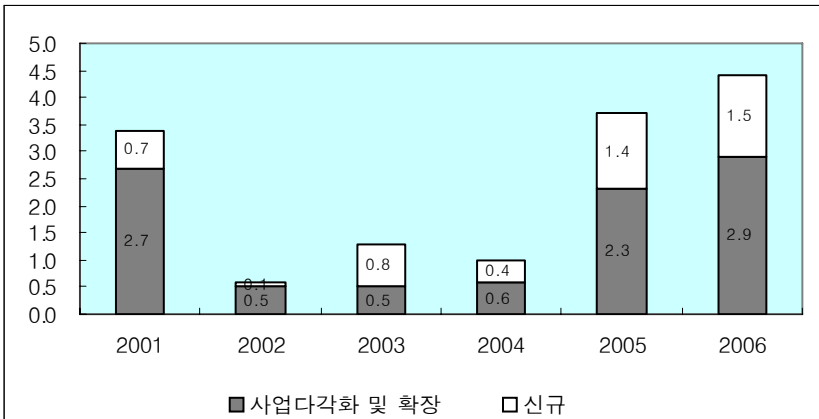
3.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 일본, 제조업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

- 일본은 2005년 36억7천만 링깃을 말레이시아에 투자해 51억6천만 링깃을 투자한 미국에 이어 투자 규모면에서 2위를 기록함. 2006년 투자액은 44억1천만 링깃을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약 50% 이상 투자액이 감소한 미국을 크게 추월하면서 말레이시아 최대의 투자국으로 부상하였고 연도별 투자액은 2004년 10억 링깃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3배 이상 증가
- 2006년 일본의 투자액 44억1천만 링깃은 1996년 이래 최대 규모로 일본이 참여한 총 81건의 프로젝트 중 20건(15억 링깃)이 신규투자이며, 61건(29억 링깃)은 재투자 및 사업다각화 투자임

<2001~2006 일본의 대 말레이시아 제조업 투자 현황>

(단위: 십억 링깃)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2006년 일본의 주요 신규 투자는 비금속광물(6억9천만 링깃), 과학 및 정밀기계(5억8천만 링깃), 전기·전자(1억 링깃) 부문의 순

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다각화 및 확장 투자는 전기·전자(14억 링깃), 석유 및 석유화학(6억 링깃), 플라스틱제품(2억1천만 링깃)의 순으로 투자됨

- 일본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Fuji Electric사가 'thin-film magnetic disc' 제조를 위해 13억 링깃을, Toray Plastics사가 ABS수지 생산을 위해 4억5천만 링깃을 투자한 것이 있음

■ 기타 주요국별 투자진출 동향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규모는 2006년 총 33억 링깃(13개 프로젝트)을 기록, 전년도인 2005년도 17억 링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동시에 역대 네덜란드의 대 말레이시아 최대 투자규모를 기록

- 총 투자액 중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1억8천만 링깃을 기록, 전체 투자 중 5.6%를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94.4%인 31억 2천만 링깃은 증액투자임

- 2006년 네덜란드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액 중 대부분은 29억 링깃의 투자액을 기록한 전기·전자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네덜란드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로는 ST Microelectronics 사의 'advanced packaged integrated circuits' 생산을 위한 16억 링깃 투자건과 Flextronics사의 시스템 통합 사업 및 PCB assemblies 생산을 위한 12억 링깃 투자를 꼽을 수 있음

● 미국

- 미국의 2006년 대 말레이시아 제조업 투자액은 2005년 51억 링깃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25억 링깃을 기록

- 2006년에 승인된 총 38개의 프로젝트 중 18개는 신규 프로젝트로 총 투자액이 10억 링깃이며, 나머지 20여개 프로젝트는 증액 투자로 15억 링깃을 기록
- 2006년 미국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로는 Motorola의 Digital 2-way radios, 초고속 무선인터넷 장비 등의 생산 프로젝트(3억5천만 링깃), Plexus Manufacturing사의 PCB assemblies와 통신장비 생산 프로젝트(2억4천만 링깃), Smart Modular Technologies 사는 메모리와 통신장비 생산 프로젝트(2억5천만 링깃) 등이 승인됨

4. 한국의 직접투자 동향

■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가 큰 비중 차지

- 한국의 최근 5년간 대 말레이시아 투자누계는 22억5천만 링깃을 기록하였는데 투자 누계액의 50% 이상은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에 의한 것이며, 삼성 계열사들은 대부분 세렘반에 위치한 삼성전자 복합단지에 투자
- 삼성 코닝이 브라운관 TV 유리 생산 설비, 삼성 SDI는 TV 브라운관 생산설비에, 삼성전자는 TV 생산설비에 투자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 중
-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말레이시아를 전자레인지의 아시아지역 생산거점으로 지정하여 기존 전자레인지 생산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기로 하고 한국 내에 있던 전자레인지 생산설비 일체를 말레이시아로 이전
- 아울러 삼성 3개 계열사의 협력업체는 총 40여개로 이들 투자 규모는 4~7억 링깃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삼성과 협력업체의 투자액은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투자액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최근 석유화학, 선진 전자산업으로 다각화

-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를 제외하고는 고려제강 등의 말레이시아 투자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대 및 기아자동차 현지 조립공장은 현지 대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대나 기아로부터의 지분 참여는 없음

<1980~2005년간 한국기업의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업종	투자건수	투자금액
식품	7	8,200
주류	1	605
섬유	16	163,249
가죽	1	105
목재	33	45,512
가구	8	6,083
포장·인쇄	14	55,511
화학	22	33,207
석유	2	207,986
고무	29	36,836
플라스틱	28	25,609
비금속광물(유리)	28	408,790
기초금속	23	237,199
금속가공	29	118,629
기계제조	14	17,847
전기·전자	89	1,106,148
운송	36	54,157
과학 및 계측기기	4	11,267
기타	11	7,338
총계	395	2,544,278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2006년 한국의 투자현황을 보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재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 화학 산업이나 LCD 모니터, PDP TV 등 선진 전자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투자는 총 18개 프로젝트에 4억4천만 링깃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5년도 24개 프로젝트 6억7천만 링깃에 비해 다소 감소
- 산업별 투자현황을 보면, 석유화학 9,100만 링깃(2,500만 달러), 운송장비 4,800만 링깃(1,300만 달러), 기계류 3,400만 링깃(900만 달러), 그리고 기초 금속에 1,800만 링깃(500만 달러)을 투자

■ 2006년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주요 투자 프로젝트

- 최대 투자 프로젝트는 호남석유의 멜라민(Melamine) 파우더(powder) 생산 공장(말레이시아 국영가스공사인 페트로나스사와 합작)으로서 총 9,100만 링깃(2,500만 달러)이 투자됨
- 남해화학은 여수에 있는 기존 멜라민 생산 설비 일체를 東말레이시아 빈톨루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영가스공사 페트로나스 자회사의 암모니아 및 우레아 생산설비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남해화학에서 설립하는 말레이시아 내 최초의 멜라민 파우더 생산 공장은 연산 능력이 1만5천 톤 규모임
- 중소기업인 한팩테크날러지스는 2005년에 총 800만 달러를 환탄주 LCD 모니터 및 PDP TV 생산설비에 투자되었고 그 이외에 3,400만 링깃(900만 달러) 규모의 전력시스템(Floating Energy powersystem), 2,300만 링깃(6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용 오디오, 비디오센서(Reverse Sensor) 제조공장 투자 건이 투자 승인됨

〈2006년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주요 투자 프로젝트〉

업체명	제품	한국지분 (%)
Dongwha Fibreboard S/B	1) Medium density fibreboard,particleboard with melamine overlay 2) Medium density fibreboard with melamine overlay, melamine impregnated paper.	70
Dongwha Furniture International S/B	1) Urea formaldehyde resin 2) Melamine urea formaldehyde 3) Melamine formaldehyde resin. 4) Urea formaldehyde concentrate	70
Aj-Eco Tech S/B	Atomised steel slag granules	35
Sam Chang Precision(M) S/B	Plasma display panel exhaust pipe	100
Hanpac Technologies(M) S/B	Plasma & LCD monitor/television.	30
GFP Engineering S/B	Moulds,tools & dies.	45
Global Bio-Diesel S/B	1) Biodiesel (Palm Methyl Ester) 2) Refined Glycerine	100
Joonhee Micron S/B	Machined parts & sub-assembled parts	25
Permas Ria Logistik S/B	Assembly for armoured vehicle.	48
Poongsan (M) S/B	Copper & copper alloy stripsStainless Steel Strips	100
Dong Kwang Etching Universal S/B	Moulds Tecturing	35
QL Agrobio S/B	Animal feed ingredients.	22
Dy Power Sytems (M) S/B	Noise filters.	100
Erae Metal S/B	Electro plating.	100
Newtechman (M) S/B	Membrane switches	100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주요 한국 투자기업 리스트(13대기업)>

회사명	업종	투자년도	투자규모 (천 달러)	종업원 (한국:외국)
고려제강	철강업	1990	10,265	9:500
삼성전자	전자레인지	1991	50,000	4:520
삼성전자	TV	1991	50,000	7:1,200
삼성코닝	브라운관용 유리 제조	1992	400,000	13:850
삼성SDI	컬러브라운관 제조	1992	500,000	46:3,700
영림전자공업	전자제품 제조업	1990	12,000	5:260
이랜택	전자통신 제조업	1990	6,280	8:382
자화전자	전자부품 제조업	1990	9,000	5:80
제일전자	전기·전자 제조업	1990	8,000	6:84
남해화학	석유화학	2005	28,000	진행중
헤닉컨코퍼레이션	전기장비 제조업	1982	8,000	5:250
LG전자	전기·전자 무역업	2005	5,000	7:180
Shin wha Intertek	제조업	1991	6,000	2:18

II. 투자유치 제도

1. 외국인투자 정책·제도

■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제한 철폐

-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는 산업구조 고도화로서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움
-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5만5천 링깃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
- 2001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서비스, 유통업은 물론 제조업에 대해서도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단독투자를 제한하였으나 2003년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완전 자유화하였으며, 종전의 수출 비중이나 팜 오일, 플라스틱, 목재 등 말레이시아 전통산업 투자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업에 관한 한 100% 외국인에 의한 지분 소유를 허용
- 그러나 금융업과 유통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 업종에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지분제한 규정이 있는데 서비스 업종의 경우 그동안 말레이시아계가 전체 지분의 70% 이상(외국인 30%)을 소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4년 말부터 유통업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전체 지분의 30%는 말레이시아 국민 중 말레이계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Bumi Putra 정책)이외의 모든 제한 철폐

- 그러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말레이계의 30% 이상 지분 의무 보유 외에 외국인투자 지분 50% 이하의 제한을 여전히 적용

■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과 관련된 기본 법규와 지침은 1986년에 제정된 투자진흥법(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86)과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에서 제정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Foreign Investment Guideline) 등인데 전자는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투자 법령으로서 전반적인 투자진흥 규정이며, 후자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일종의 투자 지침임
-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투자규모별 승인, 부동산 등 투자대상 제한 등의 업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곳인데 실제 접촉은 실무기구인 MIDA (Malaysia Industry Development Agency)에서 담당

■ 투자유치기관(MIDA),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기관인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 (Malaysia Industry Development Agency: MIDA)은 통상산업부 산하의 외청으로서 국가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및 조정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어 말레이시아 산업정책 및 제조업분야 투자유치 정책의 입안 및 집행권을 보유
- 1988년 10월, 정부로부터 Center of Investment(COI)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래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물류, 조달 등)에 대한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투자 상담 서비스 센터를 설립 하였으며 우리나라 Invest Korea 내 종합행정지원실과 같이 투자

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

- 상담 서비스 센터는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MIDA 소속 행정지원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투자와 관련된 제반 절차 및 허가사항, 각종 서식 및 작성요령 등에 대한 서비스에서부터 투자 파트너 물색 및 소개, 투자 민원 처리와 투자실행위원회에 상정할 개별안건 취합 등의 업무까지 수행
- 한편 주 정부도 중앙정부 조직인 MIDA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별도조직을 보유

<주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활동>

• 지역 내 외국인투자 유치 조정

각 주 정부에는 경제계획국(Economic Planning Unit)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있으며, 산하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두고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 관련절차 안내 및 지역 내 공단 안내, 공장건설에 따른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공단조성 및 분양·운영

주 정부는 산하의 주 경제개발공사(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또는 민간업체에게 공단조성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위임하여 운영함

• 공장건설에 따른 제반허가

공장건설 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13개 관련 부서 및 기관(소방시설, 수도 및 용수, 환경, 전기·전력, 안전, 통신, 도로, 부동산, 하천관리 등) 전부의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주 정부는 동 과정에 대한 조정 및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음

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인센티브 구분

- 말레이시아의 투자 인센티브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 외국인투자가가 활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에는 일반 인센티브 (General Incentive), 소규모 제조(Small Manufacturing) 인센티브, 첨단기술 인센티브, 전략 프로젝트 인센티브, 특정 산업 인센티브, Pre-Package 인센티브 등 6개로 구분되는데 투자자에게 PS(Pioneer Status: 개척자 지위)나 ITA(Investment Tax Allowance: 투자세액공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일반 인센티브: 부가가치 산업, 기술 집약 산업에 투자한 기업
- 소규모 제조 인센티브: 자본금이 60만 링깃 이하이며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기업
- 첨단기술 인센티브: 유망 첨단기술로 인정받는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 PS나 ITA 자격을 부여
- 전략 프로젝트 인센티브: 국가 전략사업이나 자본투자가 초대형인 경우에 주어지며, 특정 산업 인센티브는 특수 기계장비나 자동차 부품의 특정 디자인이나 모듈 생산, 바이오 디젤 등 특정 부가가치를 높이는 품목 대상
- Pre-Package 인센티브: 정부와 사전 협상하여 투자 규모, 기술 이전 분야, R&D 투자, 기술 집약 분야, 제조업 지원 서비스(물류 등) 투자 분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패키지화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도 사전협의 필요

- 각 인센티브 분야별로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세액공제 규모가 큰 개척자 지위(PS-Pioneer Status)와 별도 과세대상 소득 공제를 해주는 투자세액 공제(ITA-Investment Tax Allowance) 자격을 부여

■ 인센티브 내용

- 투자 인센티브는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모두 세금감면 형태로 주어지며, 크게 신규투자 및 재투자, 그리고 사안별 기타 인센티브로 나뉘지는데 신규 및 재투자에 관한 인센티브는 투자진흥법을 근거로 하며, 기타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개별 특별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투자 인센티브의 80% 이상은 PS와 ITA를 통해 제공
-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를 얻은 기업은 법정 과세소득의 3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기간은 통상산업부가 지정한 생산일로부터 5년간임
- 개척자 지위 대상 업종은 투자 권장 분야로 별도 고시하고 있는데 東말레이시아(사바, 사라왁) 및 말레이 반도 동부지역 등 우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중 법정소득의 1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법정 과세소득의 70%까지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공제액은 과세 연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다음해로 계속 이월 가능
-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은 투자 권장분야로 별도 고시하는데, 東말레이시아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은 역시 우대지역으로서 자본지출에 대해 80%의 공제 혜택을 받으며, 공제액은 과세 연도 법정소득의 85%까지 상계가 가능

3. 외국인투자자의 인센티브 활용 현황

■ 투자 인센티브 승인내역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6년도 기준 총 202억 링깃의 외국인투자 금액 중 117억 링깃에 해당되는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
- 일반 인센티브 수혜(부가가치 산업이나 기술이전 산업에 해당) 외국인투자 금액은 30억 링깃을 기록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투자 규모, 기술이전 분야, R&D 투자, 기술집약 분야, 제조업 지원 서비스(물류 등) 투자 분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패키지화하는 Pre-Package 인센티브 수혜 투자금액은 78억4천만 링깃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그 외 첨단기술 인센티브가 6억4천만 링깃, 전략산업 인센티브가 1억7천만 링깃을 기록

<2006년도에 인센티브를 획득한 제조업 투자 승인 현황>

(단위: 백만 링깃)

인센티브 형식	계획 수	국내 투자	해외 투자	투자 합계
일반 제조업	244	7,745	3005	10,750
중소기업 제조업	114	186.7	5.7	192.4
첨단기술	30	238.5	638.1	876.6
전략 프로젝트	4	184.7	173.2	357.9
선택산업 특별 인센티브	44	289.6	68.4	358.0
Pre-package	20	9,964	7,842	17,806
합계	456	18,608	11,733	30,341

자료원: MIDA(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Ⅲ. 법인 설립

1. 현지법인 설립 절차

- 말레이시아의 현지법인 설립은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신청과 유사하게 최저 자본금도 없음. 업종에 따라 현지인 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제출서류는 여권 사본, 사진 4매, 상호명, 회사 정관, 회사주소지 증빙자료 등이며, 그 외 업종별로 소정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회사명 검색

- Registrar of Company(ROC)에 상호명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업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허가가 불가

■ 법무사(Secretary Company)를 통한 회사설립 신청

- 수권·납입 자본금 설정, 이사진 목록, 주주목록 작성, 회사목적 기재, 기타 등록용 양식을 작성해야 함. 현지법인의 이사 선임에 있어 한국측 이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무방하나, 이사로 등록될 때 현지에 있어야 하며, 만약 한국에 있을 시에는 변호사 입회하에 서명날인을 하면 됨
- 최소 2인 이상의 현지 거주 이사가 필요한데 현지이사라 함은 Work Permit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되며, 현지법인 설립 시에는 현지에서 Nominee Director를 지정, 등록하고 추후 한국인 파견자가 Work Permit 취득 시 현지거주 이사로 명의만 변경하면 됨
- 또한 법인 설립 시 상기 Nominee Director로서 이미 Work Permit를 갖고 있는 다른 한국인의 명의를 빌릴 수도 있으며

주주는 한국의 본사가 될 수도 있으며, 주식을 이사 개개인이 분할소지 할 수도 있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

■ 회사 계좌 개설

2. 제조업 투자절차

- MIDA에 제조업 투자 관련 상담 및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산업국은 제조업 육성차원에서 허가 및 인센티브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실행위원회(Action Committee on Industry: ACI)에 상정하며, ACI의 결정사항에 대해 통상산업부장관의 결재를 득한 후 최종 결정사항을 투자자에게 통보

<실행위원회 개요>

구성	위원장은 MIDA 청장(chairman) 또는 MIDA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이 되며, MIDA에서는 부서사무총장 2인(deputy director general I, deputy director general II) 및 모든 국장(director)들이 참석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통상산업부(MTI) 및 재무부(MOF)·내국세국·관세국의 국장급이 참석함. 또한 사안별로 필요시 이민국·환경국·중소기업개발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함
개최시기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
기능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조업 허가 여부, 제공가능 인센티브 종류, 외국인 기술자수 등에 대해 결정
인센티브 수혜근거	투자진흥법(Promotion of Investment Act)
인센티브 결정시 고려사항	산업별, 제품별로 책정되어 있는 3가지 수준 ①부가가치 기준 ②원자재 및 부품 국내 조달비율 ③기술수준(MTS지수 = 전체직원 중 관리 기술 감독직 직원의 비율) 중 최소 2개 이상 충족되어야 함
처리기간	첨단기술 수반산업에 대한 신청 건은 신청 후 4주 이내에, 기타 신청 건은 6주 이내에 일반적으로 처리함

- 국가 전략산업 프로젝트 관련 허가의 경우 통상산업부 장관 이외에 재무부장관 결재도 필요한데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는 10년간 면세 또는 5년 이내 발생하는 자본비용의 100% 투자소득 공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 폭이 크기 때문임

<제조업 투자 시 제출서류>

- 투자계획서(합작투자의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포함)
(사업타당성, 고용계획, 산업연관 효과, 수출 및 고용효과 등)
 - 투자신청서(영어, 말레이어)
 - 외국 모기업 이사의 투자의결서(모기업 대표자, 이름, 국적 등 명기)
 - 법인 설립 등기서류
 - 특허권, 기술인증서(인센티브 제공 검토용)
 - 투자자본 조달 계획서
-

IV. 지사/연락사무소 설립

- 말레이시아에서의 지사 설립 절차나 비용은 현지법인 설립보다는 까다로운 편이나 MSC(말레이시아 실리콘밸리 지역) 입주 예정업체나 IT 업체는 용이한 편임. 현재까지 한국의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은 대한항공 등 1~2개사에 불과하며, 대부분 현지 법인을 설립

1. 지사 설립 절차

- 말레이시아 Companies Commission에 외국인 지사 설립 신청서 제출
 -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며 현지 에이전트(법무사) 정보도 제출
- 현지 회사등록 DB 통해 기존 회사명과 중복여부 확인
 - 해외 모회사와 지사명이 동일해야 하며, 기존 회사명과 중복 시 기존 회사의 동의를 거쳐야 회사명 사용 가능
- 지사 설치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주식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인지세, 서비스 세금을 제외하고 총 9,000링깃 소요
- 지사 승인
 - 신청서 제출 후 보통 3주 소요

2. 지사 설립 시 제출서류

- 모회사 법인등록증 사본
- 모회사 정관
- 말레이시아 지사 사무실 주소
 - 사무실 설립 전의 경우 보통 법무사 주소를 활용
- 에이전트 정보
 - 풀 네임이 기재된 대표자 여권 사본,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등
- 등재 이사진 정보
 - 등재 이사의 여권사본,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국적, 직업 등

3.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 절차

■ 말레이시아 공업개발청(MIDA)에 신청서 제출

-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활동계획, 모회사 법인등록 정보운영자금 조달 정보(모회사 혹은 은행, 동남아 지역 사무소 등) 기재 필요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과 함께 회사 브로슈어, 최근 모회사의 재무제표, 연락사무소 운영 시 예상되는 각종 지출항목 요약서 등 3개 자료 의무 제출

■ 승 인

- 보통 신청서 제출 후 21~28일 소요

■ 비 용

- 7,070링깃 (법무사 수수료 포함)

V. 조세 제도

1. 과세 원칙

-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혹은 파생되었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의 소득은 과세 대상임
- 그러나 거주기업(은행, 보험, 항공,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비거주 기업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비과세

2. 주요 세율

- 법인세: 27% (2008년부터 26%)
- 석유소득세: 38%
- 개인소득세
 - 1~28%: 거주 개인의 연간 과세소득이 3만 링깃 이상일 때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 적용
 - 28%: 비거주개인
- 원천과세(비거주개인)
 - 특정 종류의 소득(동산 이용, 기술용역 서비스료 등): 10%
 - 이자소득: 15%
 - 로열티 소득: 10%
 - 계약에 의해 계약자에 지급되는 금액: 10%
 - 계약에 의해 근로자에 지급되는 금액: 3%
- 판매세
 - 판매세는 1972년 판매세법에 의거하여 특정 수입상품과 국내 제조 상품에 증가세율로 부과되는 소비세로 통상 5~10%
- 서비스세: 5%
 - 과세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과세 대상은 변호사, 건설기술자, 건축사, 측량사,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 광고회사, 사립병원, 보험회사, 통신회사, 호텔과 음식점의 서비스

- 국내소비세
 - 국내소비세는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부과되며 과세대상 상품은 술, 담배, 사치성 소비재 및 자동차 등임
 - 자동차에는 배기량 별로 75~105%의 국내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자동차소비세는 최근 들어 자국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율을 고율로 유지하기가 어려워 관세 대체 수단으로 고율 부과

3. 자본 공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자본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초기공제는 1회에 한하여 시행되는 반면 연간공제는 정액방식에 의해 매년 시행
- 초기공제
 - 산업용 건물: 10%
 - 컴퓨터 및 IT장비: 20%
 - 환경관리장비: 40%
 - 중장비 및 자동: 20%
 - 설비·기계류: 20%
 - 기타: 20%
- 연간공제
 - 산업용 건물: 3%
 - 컴퓨터 및 IT장비: 40%
 - 환경관리장비: 20%
 - 설비·기계류
 - 자동차, 중장비: 20%
 - 설비·기계류: 14%
 - 기타: 10%

Ⅵ. 노무 관리

1. 고용 관리 주의점

- 말레이시아인은 이직율이 매우 높으므로 필요인력의 확보에 있어 이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무관리직의 경우 서구식 고용 관행에 익숙하여 이직이 잦으므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 비숙련 현지 인력은 주로 말레이인인데 잦은 이직 및 결근과 초과 근무 기피 등으로 현지인만으로는 안정적인 공장운영이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높은 편으로 외국인 노동력(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외국 인력은 전체 비용을 감안하면 임금 비용 상의 장점은 크지 않으나 결근이 없고(기숙사에서 숙식) 계약기간 중에는 이직할 수 없다는 것이 투자 업체들의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주된 이유인데 외국 인력의 고용은 알선업체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임
-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육체노동자와 월평균 임금이 일정액 이하인(현재는 1,500링깃) 자로 제한되고, 월급이 1,500링깃을 초과하나 5,000링깃 이하인 피고용인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 시 노동국에 고발하여 조정 받을 수 있음
- 피고용인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전 그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노력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즉 업무개선을 촉구하는 경고서한의 발부는 해고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견습사원의 경우에도 해당
-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정부는 '정리해고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허가사항이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해고되어야 함

-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이직하였으나 이와 같은 상황을 조장한 것이 사용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자의적인 해고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같은 보상을 받는데 말레이시아의 법적용어로는 실질적인 해고(constructive dismissal)로 일컬어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피고용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행위 등에 의한 이직도 실질적인 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전문가 채용은 핵심직위(key post)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 일자리에선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외국인이 채용될 수 있으며 핵심직위의 수는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짐

2. 임금 및 근로조건 관리 주의점

- 말레이시아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정부가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가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도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노조도 통제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을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음
- 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수당의 종류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으며 상여금은 기업성과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과 기업의 성과에 연관되어 지급되는 변동적 상여금으로 구성
- 개별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개별 근로자의 성과나 태도 등이 고려되어 개별 근로자의 태도, 출근율, 초과근무 수용여부 등이 개별 근로자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임
- 관리직의 경우 서구식 고용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어 회사보다는

근로자 자신의 경력관리를 우선시하여 전직 여부를 근로자들이 결정하므로 필요 인력을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유지시켜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체계적인 승진 및 승격 제도를 갖추는 것이 현지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생직장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됨

3. 노사관리 주의점

- 말레이시아는 강제중재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1967년 노사관계법 제정으로 설립된 노동법원의 중재를 통해 파업 및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 수단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노사관계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하게 유지되고 있어 노조인정, 단체교섭의 대상, 파업권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엄격하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미미
- 정부는 노조의 규모 및 구조 등을 통제하고 있어 중요한 전략 산업은 노조가 설립되어도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실정임.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띠는데, 정부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노조 조직률은 10% 미만으로 연간 파업 건수도 10여건에 불과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노조설립의 움직임이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공권력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해결을 지원해 줌
-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다민족국가로 서로 다른 인종의 근로자간 반목이 은연중에 팽배해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각종 채널을 통해 여러 인종의 다양한 의견이나 성향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정부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 구성에

말레이시아의 인종구성비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노사관계 법상의 조항

- 노조의 설립에는 최소 7명의 노조원이 필요함
- 새로 설립되는 노조의 조직대상이 기존의 노조와 중복되는 경우 노동국장은 제2의 노조의 등록이 두 노조 간의 경쟁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2의 노조의 등록거부가 가능함
- 파업이나 다른 단체행동을 시작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가 포함된 비밀투표에 의한 승인이 필요함
-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인정요구를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의 발생 시 인적자원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함
- 노동조합 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서면 요구로 가능하나 사용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노조원은 16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동일한 직장, 직종 혹은 업종에 종사하여야 하며 노조간부는 노조가 소속된 직장, 직종이나 업종에 적어도 1년 이상 재직해야 함
- 노사분쟁 중재는 노동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원은 중재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결정을 내려야 함
-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승진, 전보,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으며 기존의 단체협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협약이 합의되지 않으면 기존의 단체협약서는 준수할 필요가 없음

Ⅶ. 기타 정보

1.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 산업진흥청)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의 추진과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
- 주소: Block 4, Plaza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267-3633
- 팩스: (603) 2274-7970
- 이메일: promotion@mida.gov.my
- 홈페이지: www.mida.gov.my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통상산업부)

- 주소: Block 10, Government Offices Complex,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6203-3022
- 팩스: (603) 6201-2337
- 이메일: webmiti@miti.gov.my
- 홈페이지: www.miti.gov.my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 산업진흥청)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의 추진과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
- 주소: Block 4, Plaza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267-3633

- 팩스: (603) 2274-7970
- 이메일: promotion@mida.gov.my
- 홈페이지: www.mida.gov.my

■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 기업위원회)

- 사업 운영 개시 및 사업장 설립 시 기업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주소: Level 2 & 10-18,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4047-6000
- 팩스: (603) 4047-6317
- 이메일: enquiry@ssm.com.my
- 홈페이지: www.ssm.com.my

2. 한인 단체

■ 말레이시아 한인회

- 주소: 1st Floor Premises, Lot B 1-2, Boulevard II Jalan Ampang Utama 2/2, One Ampang Avenue 68000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 전화: (603) 4257-7585
- 팩스: (603) 4257-3397
- 이메일: ksmkl@hanmail.net
- 홈페이지: www.mykorean.org

3. 컨설팅 업체

■ RSM Robert Teo, Kuan & Co.

- 주소: Penthouse, Wisma RKT, No.2, Jalan Raja Abdullah, Off Jalan Sultan Ismail, 5030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697-2888

국가 개요

- 국 명: 말레이시아(Malaysia)
- 면 적: 329,758km²(한반도의 1.5배)
- 수 도: 칼라룸푸르(Kuala Lumpur)
- 인 구: 2,664만명(2007.1월 추정)
- 민족구성: 말레이계(61%), 중국계(24%), 인도계(7%), 기타(8%)
- 언 어: 말레이어(Bahasa Malay), 영어(상용어)
- 종 교: 이슬람교(60%), 불교(17%), 기독교(3%), 기타(20%)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내각수반, 압둘라 바다위 수상)
- 국가원수: Mizan Zainal Abidin 국왕 (제13대)
- 화폐단위: 말레이시아안 링깃 (Ringgit, RM으로 표기)
- 환 율: RM 3.4 / US\$ 1 (2007.5월 기준)
- 기 후: 열대성 기후, 연평균 27℃, 연평균 강수량 2,410mm
- 시 차: GMT + 8 (한국보다 1시간 늦음)

<부록>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1986 41